

건설업 성장 위축... 강원 경제성장률도 뒷걸음질

강원도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GRDP 성장률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 성장률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도내 GRDP 성장률은 2.6%다. 지난 2015년 성장률 3.3%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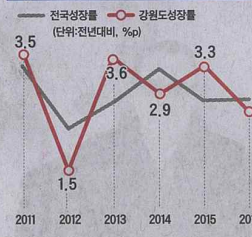
2016년 강원도 성장률은 전국 성장률 2.8%보다 0.2%포인트 낮았다. 2015년에는 도 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았다. 도 성장률이 하락한 이유는 건설 분야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6년 GRDP 성장률 2.6%
전년도보다 0.7%p 하락

올림픽 관련 공사도 모두 마무리
평창이후 성장 모델 대안 나와야

최근 평창올림픽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늘어났고, 주택건설이 증가하면서 도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하지만 올림픽 관련 시설 발주가 점

강원도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차 감소하면서 성장 폭이 줄고 있다. 지난 2016년 도내 건설업 성장률은 6.9%로 비교

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2014년 9.4% 성장률에서 2015년에는 7.1%로 내려왔고, 2016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됐다.

문제는 도 경제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도의 연평균 성장률은 2.8%로 전국 평균인 4.3%보다 무려 1.5%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연평균 성장률은 전국 평균과 같은 2.9%로 나타났다. 실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업의 도내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였지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0.4%포인트로 높아

졌다. 건설의 도내 성장률 기여율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15.7%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기여율 3.9%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올림픽 관련 공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도내 건설업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도내 전체 성장률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도내 전체 경기 침체도 우려된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림픽 공사를 대체할 특별한 대안 없는 상태"라면서 "올해 도내 건설사들의 수주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올 SOC예산 감소 '직격탄' 공공기관 발주공간 확 줄었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소 여파로 올해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발주계획량이 급감했다.

그나마 전년에 비해 발주량을 늘린 일부 발주기관도 지난해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된 물량이 대부분이고, 신규 일감은 드물어 건설업계의 수주 경쟁은 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계획한 올해 공사비 240억원 이상 국제입찰 대상공사는 도급금액 기준 3조8775억원으로, 전년(6조3261억원)에 비해 40% 가까이 증발했다. ▶관련기사6면

올해 입찰 대상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8개 공구 △시화 분기점(JCT) 건설공사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성남 간 건설공사 4개 공구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과주 간 건설공사 5개 공구 등 18건으로 모두 지난해 발주계획에 포함됐지만 사

도공·철도공단 등 이월물량 대부분 지방공기업도 거의 작년의 반토막 "건설 '일감절벽'... 수주경쟁 심화"

업계회 직접성 재검토 또는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된 물량들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건설사업 발주계획도 금액으로 2조500억원에 그쳐 전년(2조8656억원)보다 28.5% 줄었다.

공공시장의 큰손인 한국도지주택공사(LH)도 다음달 내놓을 발주계획의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LH의 잠정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주 규모는 전년보다 1조원 줄어든 4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주택 공급 규모가 지난해 6만 기구에서 올해 5만5000기구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인데 다음달 나올 확정 운영계획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수도권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지방공기업들의 올해 발주계획도 금액으로 전년보다 40% 넘게 급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올해 건설공사 발주계획은 8862억원으로 전년(1조5216억원)보다 41.8% 줄었고, 경기도시공사는 2659억원으로 전년(5741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환경공단도 6413억원에 그쳐 전년(9535억원)에 비해 32.7% 감소했다.

그나마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건설공사 발주계획은 1조4340억원으로, 전년(733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약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집행하려던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4공구 조성공사' 등 기술형입찰 4건이 올해로 이월됨에 따라 발주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채원진기자chc@

무술년 공공기관 발주계획 수립 줄어

공공기관들의 무술년 발주계획 수립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부산시 서구는 지난해 말 '올해 1분기 발주계획'을 마련했다.

부산시 서구의 1분기 공사 발주 규모는 28건에 76억원으로 작지만 올해 공공기관 발주계획 수립에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어 국방부가 올 들어 처음으로 이달 초 '올해 대형공사 발주계획(1분기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4월까지 국방 시설분부를 통해 총사업비 4300억원 규모의 군 시설공사 9건을 기타공사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이 올해 발주계획 수립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에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4대 건설공기업 중 처음으로 올해 발주계

도공 이달말, LH 다음달 발표... 신규 일감은 급감

획을 제시했다.

K-water는 올해 모두 544건, 2조4340억원 규모의 시설공사를 집행할 예정으로, 기술형입찰은 터키(설계시공 일괄입찰) 4건, 실시설계 기술제한 1건,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2건 등 7건이 포함돼 중대형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중 터키방식의 '대산인해산업지역 공업수도(해수담수화) 시설공사'의 예산액이 2083억원에 달하는 최대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날 올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건설사업을 신규 발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상반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

의를 받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목포 간 건설사업 △인천발 KTX 연결사업 △수원발 KTX 연결사업 등은 발주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와 함께 △춘천~속초 간 고속도로 △인덕원~수원 북선전철 △월곡~관교 북선전철 등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검토 등 사전 절차를 밟고 있어 연내 발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이달 말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발주계획을 선보이고, 다음달에는 한국도지주택공사(LH)가 올해 발주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도로공사가 발주할 기술형입찰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6, 8

공구(기술제한)'와 터키 방식의 '김포~과주 간 건설공사 2공구'가 포함돼 있다.

올해 LH가 선보일 기술형입찰에는 지난해에서 넘어온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의 '행정중심복합도시 6동목도 및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와 신규 사업인 터키방식의 '평택고도 수질복원센터 건설공사'가 포함될 전망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14% 줄어 도로와 환경시설, 공공주택 등 각 발주기관의 발주량도 줄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해 발주 예정인 기술형입찰 중 1조4000억원가량이 올해로 이월돼 신규 일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